

응답 받는 기도 (요한복음 15:1-7)

하나님께서 오늘도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중한 날이 되기 바란다. 응답받는 기도이다. 어떻게 하면 응답을 받을수 있을까? 아주 중요한 제목이다. 그리고 그것도 한번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평생 지속적으로 응답을 받을수 있을까? 성경의 거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랬다. 그런데 오늘 그 답이 오늘 말씀에 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평생 지속적으로 계속 응답 받는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다. 잘 듣고 나는 어디에 걸려있는가? 어디가 잘못 되어서 응답이 안되는가 보고 그것을 기도제목으로 잡기 바란다. 그게 딱 기도제목으로 잡히면 평생 기도해서 결국은 그것이 내게 성취되게 해야 한다. 할수 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늘 메시지 듣는 것 안에도 다 그대로 들어 있다. 성경에 지속적으로 평생 응답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요셉이 이런 원리로 살았다. 그래서 평생 응답 받았다. 모세도 완전 기적의 인생이었다. 원리? 똑 같았다. 사도바울 계속 응답받고 대 역사 일어나고 세계사, 인간 역사를 뒤집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조금 찾기 힘들다. 교회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은 몇 있다. 그런데 세상 역사를 바꾼 사람은 많지 않다. 원리는 다 똑같다. 잘 들어보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보고, 그 다음 단계를 연약으로 잡기 바란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기회가 많이 있다. 여유있게 잘 듣고 잘 잡고 기도제목 한 개로 끝이다.

지금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해야 하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가지면 아주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 같은 날들이지만 한해의 마지막, 첫날은 의미가 더 의미가 있다. 지나간 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해의 연약으로 잡는 축복의 날들이 되기 바란다. 때로는 지나간 해에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 실수가 있었을수도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나를 갱신도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신자는 항상 새출발이다. 어려운 일이 없을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생의 연약을 잡았어도 어려운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를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고 했다. 사도바울의 인생에서 내린 결론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였다.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살아온 세월들 돌아봐도 그렇다. 어려운 시절은 참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니 그것이 참 축복이 되었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더 준 것이 없다고 하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피할 길을 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우리가 연말을 두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중요한 말씀들이다. 그래서 특별히 연말 연시에는 이런 말씀들을 두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새로운 소망을 갖길 바란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12월에 우리 교회가 만 20세가 된다. 개척 당시부터 함께 있었던 분들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들어온 분들도 한 교회에서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도 여러 가지를 의논을 하고 있다. 의미 있는 분들을 초청도 하고 잔치도 하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그 날을 우리가 매년 선교의 날로 하는게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12월에 라틴아메리카 데이를 하지 못하고 1월로 넘어간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1월에는 매년 라틴아메리카 데이를 하고 매년 12월에는 우리 교회 전체 선교대회를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다. 이런것과 함께 내년도 우리가 함께 잡은 단어가 지교회, 중직자, 렘넌트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응답이 내년에도 주실줄 믿는다.

1. 응답받는 기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무엇에든지 응답받을수 있는 중요한 길을 말씀하십니다. 7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너희가 내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하셨다. 일단 놀라운 말씀이다.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룬다고 하셨다. 누구든지 이렇게 되고 싶은 말씀이다. 예전에 나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가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이 조건이다. 그때도 내가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안에 거하는가가 막연했다. 이것만 되면 되는데, 그러면 계속 응답된다는데. 응답 자체도 너무 귀하지만 응답이 있어야 증인이 된다. 그런데 이 방법과 원리를 설명한 것이 1-6절이다. 1절에 일단 근본 선언부터 한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나무를 관리하는 농부라고 하셨다. 우리가 참 가지가 되려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 관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다. 2절에는 하나님이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제거하고 잘 맺는 가지는 더 잘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것도 또 하나의 원리이다.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자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른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은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다. 응답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먼저는 뭐가 더러운가를 생각한다. 윤리적인것도 포함되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인본주의도 포함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단에게 속은것이니까 더러운 것이다. 그리고 종교생활도 들어갈 것이다. 다른 종교를 믿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종교생활 하는것도 깨끗한건 아니다. 분명 깨끗하게 해야할 대상이다. 그런데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은 2차적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근본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깨끗함을 위한 근본은 무엇이겠는가? 아무래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일 것이다. 왜냐하면 응답은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자꾸만 깨끗하게 한다. 더 맑게 하면 더 깊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깨끗한 믿음과 고백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통해 나의 죄, 종교, 인본주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출발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고 했다. 그렇다면 깨끗해지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말씀 아니고 우리의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수 있는가? 그리고 4,5절은 같은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니 안에 있겠다고 하셨다. 7절의 조건이 뭐냐면 니가 내 안에 내 말이 니 안에 있으면이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나 사실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5절에 한번 더 읽어보면 더 강조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못 맺는다고 했다. 열매가 곧 응답이다. 그런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똑 같이 될거라고 하셨다. 그러면 전체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7절이 결론이고 1-6절은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 원리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라는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것과 같은 이야기이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자동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지에 붙어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하게 두가지로 말할수 있다. 첫째는 믿는 것이다. 믿으면 일단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다. 구원 받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6절을 한번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사람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이 없고 나중에 사람들이 가지를 지옥불에 던져 넣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구원을 받아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옥불을 면하는데 그러면 구원 받았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오는가? 아니다. 우리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하는게

다 오나? 어떤 분은 울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러면 구원 이후에도 내가 예수님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다. 처음 말한것처럼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말한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모든 인물들에게 똑같은 원리를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냐? 여러 가지 말 할수 있을 것이고 신학적으로 하면 책 한권 나올 것이다. 그런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지면 된다. 구원 받고도 하나님과 생각이 통하지 않아서 사실은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기는 왼편으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나도 정확히 오른쪽으로 가야 하는데, 바로 옆에 가거나 조금 틀어졌거나, 어떤 형태든 딱 그 자리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응답이 필요하기에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응답하고 싶은데, 길이 다른데 자꾸 응답해 달라 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미움이 전혀 없기에 너무 힘들다. 자기가 자기 목적으로 구원해 낸 백성인데, 응답을 못하니까.

어떤 분 간증을 들었다. 이 분이 가정이 살아온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얼굴에 화상을 입었다.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 미안해서 못 쳐다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울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왜나를 이렇게 만드셨냐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답이 왔는데 어느날 하나님이 나는 너보다 더 슬프다고 하였다. 왜 그러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했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있는데, 니 얼굴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내가 니 얼굴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 마음은 그 일 때문에 그렇게 한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니보다 더 슬프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이었다. 그 때부터 이 여자는 맨얼굴로 다니게 되었다. 화장도 안하고. 하나님의 심정이다. 니가 이길로 오면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올건데 왜 옆길로 가냐. 그리하고도 응답을 주시라고 이야기 하면 내가 이것을 어찌해야 되냐, 내가 니 말을 들어야 하나 안 들어야 하나는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 일 것이다. 우리가 그 여자처럼, 극단적인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매달리고 왜 응답이 안되냐고 매달리면 같은 말씀의 응답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 중 대부분은 그렇게 심각하게 그 여자처럼 기도하지 않는다. 갈등 많지만 덮어놓고 살 것이다. 응답 안 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덮어 놓는다. 그리고 기도 응답 안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 놓고 말도 못한다. 그냥 그렇겠지 하고 가는 것이다. 성경의 결론중의 하나고 평생에 계속적으로 응답받아 시대적인 증인이 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다. 그러면 응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이 메시지이다.

모세가 어느날 말씀을 받았다. 그 전의 인생이 틀린건 아니다. 복음 아주 잘 알고 있었다. 창세기를 기록할 정도니까. 그 엄마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 그런데 응답 별로 안 되었다. 어느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때부터 응답 정도가 아니었다. 뭔가 질문과 방향하던 모세의 생각이 하나님의 것에 꽃혀서 줄을 정확하게 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소원이 같아야 한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한 길을 가고, 하나님과 갈등이 없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지속적으로 응답이 되고, 불신앙의 말이 나올 이유가 없다.

우리는 믿는다. 왜 믿는가? 구원을 위해 믿는가? 너무 귀하다. 믿을 때는 천지도 모르고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 놀라운 구원이다. 나도 그렇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야 한다. 237, 치유, 서밋, 세계 복음화, 하나님의 생각이다. 교회와 하나님되고 강단, 본부 메시지와 함께 가는 것, 하나님의 지상명령 세계 복음화를 따라 가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생각이다. 제자를 세우고 증인 되는 것, 램넛트를 위해 헌신하고 237, 세계 복음화에 생명거는 것, 그러면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자기가 된다. 근본적으로 붙는 방법은 믿음이다. 생각도 같아야 딱 붙어 있는 것이다. 믿음은 있는데 생각은 같지 않으면 자기가 흔들흔들한다..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무엇이든 구하라. 응답하겠다. 아주 간단하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사단 결박해야 한다. 이것이 무너져서 내 생각이 하나님과 100프로 맞아서 너무 감사해서 매일 울어야 하는데, 사단이 이걸 방해한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 금요기도회 할 때 이은철 목사가 그리스도를 세 번 부른다. 기도

할때마다 부른다. 그냥 부르는게 아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 이시간 내게 그리스도, 내 가정에 무너져야 할 이것,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 내 소원은 미국 복음화입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그리스도, 하나님 남미 끝까지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이다. 누구든지 해야 한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생각이 100프로 맞아져서 완전 인생이 되기를 바란다.

2. 언약기도

하나님의 생각을 기도하는 것이 언약기도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글로 썼어. 그게 언약기도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다르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이 땅에서 성취되면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다. 이것을 우리 언어로 정리한 것이 237, 치유, 서밋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한 것이 부활메세지, 여기에 대한 마지막 강단이 감람산이다.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언약기도이다. 이것이 우리의 언약이다.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별도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언약을 먼저 근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하자고 말씀을 정리해서 쓰는 것이 우리가 쓰는 언약기도 이다. 이것은 우리만 하는것이고 지금 말하는 언약기도는 누구든지 하는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는 기도를 말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언약이 있어야 한다.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언약이 필요하다. 내가 구체적으로 하루하루 평생을 살아야 하므로. 이 말씀이 내게 개인적으로 언약이 되어야 한다. 요셉에게 꿈은 개인적인 언약이었다. 모세가 호렘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받은 말씀은 개인 언약이었다. 사도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말씀을 주셨다. 평생의 언약이다. 언약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언약으로 살 것이다. 당연히 그 언약을 기도하게 되어 있다. 자연적으로 그 언약과 하나가 되게 되어 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자연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이, 그 언약이 내 인생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자연적으로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생각과 소원이 같아지는 것이다. 일단 하나님과 생각과 소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24로 가는 것이다. 24시 되기 전에 하나님과 생각만 통해도 많은 응답이 온다. 그리스도만 언약으로 잡아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 그런데 생각이 하나님과 같아져서 인생이 하나님과 방향이 많으면 더 큰 응답이 올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내게 기도가 되고 언약이 되어 24시간 잡는다?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오는 것이 25시이다. 모든 것을 뛰어 넘어 처음부터 25시를 달라고 기도하면 귀신이 온다. 처음부터 원리를 설명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 딱 살아 있어야 한다.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 자체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응답을 받아야 하니까. 기도 자체가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언약이 중심된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기도의 방향이 멈추게 된다. 내 기도 안에 언약이 없으면 사실은 방향하게 된다. 그 때는 잘 안깨달아진다. 내게 언약이 들어와 자리잡게 되면 사실은 방향이었구나, 그 때, 그런 생각이 들어온다. 언약이 있으면 이제 중심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때는 이것저것 바쁘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게 된다. 언약이 딱 있으면 중심이 있는 기도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집중이다. 이 집중의 은혜를 주시면 이제 24시로 가게 된다. 그리고 25시는 그냥 오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말한다고 믿는다. 너는 내게 붙어 있으라. 안그러면 열매 없다. 니가 내게 붙어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대로 구하라. 다 주겠다. 붙어 있는게 뭐냐? 믿음으로 근본 하나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각과 소원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다. 자연히 같아진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전능하다. 이 말씀이 올해, 내년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길 바란다. 자신의 기도를 생각해 보고, 나의 영적 위치를 생각해 보라. 언약과 기도를 생각해 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도제목이 나오게 되어 있다.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언약 잡고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증인되고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해도 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 바란다.